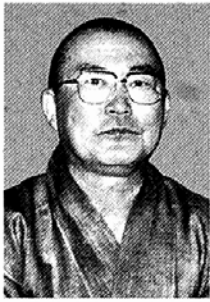


“해인사 청동대불 조성 성철스님 유지 아니다”

인리부 성철문도회장 천제스님

해인사는 청동대불 조성이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청동대불 봉안이 자운·성철 스님의 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인사 청동 대불이 자운·성철 스님의 유지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생전의 성철스님(1912~1993)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만상좌 천제(圓提)스님이 “해인사 청동대불 조성불사가 성철스님의 유지가 아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가야산을 무척 사랑하셨다. 산승은 산을 지키는 게 본분이라고 할 정도로 풀 한포기, 돌맹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셨다. 주석하시던 암자로 가는 길을 넓히는 것도 반대하셨다. 67년 낙화담(海因寺)으로 오르는 원편 계곡을 부락으로 조성하려고 하자 해인사 계곡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며 뒷산 부락을 만들어 낙화담 계곡의 절경을 지켜내신 분이다. 그리고 관이 워낙 강경해서 끝내 관철되지 않았지만 주자시설과 큰 부락은 산문밖에 있어야 수행도량 해인사의 위상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스님의 뜻이었다.

“스님 뜻 왜곡 가슴아파”

또한 가야산을 국립공원으로 정해놓고 관광상품화 하려고 마구잡이로 개발하자 스님께서는 ‘해인성지’라는 친필을 써 주시며 ‘가야산과 해인사는 공원이란 위상보다는 성지(聖地)로 보존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다. 지금도 해인사에는 그 친필석비가 세워져 있다.

89년 해인사인회에서 대불을 비롯한 재가불자수련회 건립을 구체적으로 의논했다고 하는데, ▲회의의 내용과 결과가 어찌되는 모르겠으나 성철스님께서는 임회에 참석하신 적이 없으며 중무실에 내려간적도 없을 정도다. 이런 스님께서 대불 조성과 수련회 불사와 관련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해인사 불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해인사 불사는 소임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또 불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소임자들이 뜻을 모아 해나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불사에 성철스님이나 자운스님을 끌어 들여서는 안된다는 게 분명한 내 입장이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의 의지로 불사를 진행하는 것은 탓하고 싶지 않으나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홀용하신 스님들의 참다운 뜻을 왜곡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큰스님을 직접 모셨던 많은 스님들이 자신의 입장에 연연해 성철스님의 뜻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부산=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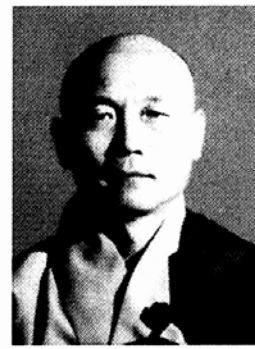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자”

특별기고

정봉 스님

쌍계사 금당선원 유나

해인사 대불 조성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돼 자칫 불교계 내분으로까지 치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쌍계사 금당선원 유나 정봉스님이, 해인사와 수경스님, 그리고 해인사 선방수좌 등 사태의 당사자 모두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자는 내용의 기고를 보내왔다. 정봉스님은 67년 해인사로 출가하여 그동안 범어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에 정진해 온 선승이다.



<편집자>

해인사 청동대불 조성불사가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며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거룩한 불사가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게 되었을까?

대부분의 불사가 철저히 하드웨어적이라 콘텐츠를 채우기 위한 불사는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다.

지금 전국에는 실업자가 백만명이 넘고 노숙자,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한 제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도 대불 건립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제라도 해인사가 계획한 일부 수정해 여법하게 추진하면 어떨까 한다. 해인사 종합불사의 기본 골격은 본당을 중심으로 한 스님들의 수행공간, 그리고 현재 대불을 조성하려고 하는 구 해인초등학교 자리는 신도들의 수행공간으로 한다고 한다. 이 ‘신행공간’에 설법전과 상설 수련원을 먼저 건립하고, 세계 최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가장 어울리는 크기의 불상을 조성하는 것이다. 굳이 ‘최대’ ‘최고’를 고집하려면 세계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불상, 최고로 아름답게 조성되는 불상이 되도록 노력하자.

해인사 종합불사 계획 일부 수정후 여법하게 추진

시주자가 불상 건립으로 시주했으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거액을 낸 시주자의 신심이라면 충분히 납득 하리라고 믿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배우며 수련할 수 있는 설법전과 수련원을 건립하고 아울러 적당한 크기의 불상을 함께 그 공간에 모신다면 훨씬 더 커다란 공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수경스님이 다소 과격한 내용으로 기고문을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사실 자운·성철 큰 스님이 세계 최대 청동대불을 조성하라는 유지를 남긴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해인사 중무소속에 큰 스님을 팔지 말라고 경계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비록 가정법을 썼다 할지라도 “자운과 성철 스님이 우리시대의 스승이라는 말을 천부당 만부담하다. 우리 시대의 고승으로 모셨던 자운과 성철이라

는 이름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야 한다”, “종지를 받들지 않으면 종정은 종정이 아니고 방장은 방장이 아니다”고, 마치 청동대불 건립을 반대하지 않으면 종지를 받들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여, 종정과 방장 스님도 청동대불을 반대하지 않으니 종지를 받들지 않은 것이 되므로 종정이 아니요, 방장이 아니라는 표현은 참으로 어색하고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표현이다. 그리고 청동대불 조성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설득력있게 지적하여 당사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인사 선방수좌들도 침묵만 지키지 않아 청동대불 건립 반대에도 동참할 것을 호소해 수좌도 뜻을 같이 하도록 했어야 글을 쓴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겠는가.

옳은 말 일지라도

자극적 표현은

오해·반발 부를뿐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하면 일반 독자는 대리만족으로 통쾌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이해 당사자는 반발하기 마련인 게 중생심이다. 그런데 자극적인 발언을 하여 글의 취지 전달에 혼선을 빚고 오히려 선방수좌들의 오해와 반발을 일으키게 한 것은 수경스님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일반 언론인이라면 몰라도 마음공부 하는 수행자라면 나의 표현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수좌스님들이 한 생각 망상을 일으켜 좌복을 벗어나 공부를 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게 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구나! 내 허물이 크구나! 라고 생각해 불칙하다.

그러나 그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물리쳐진 힘을 과시한 해인사 선방수좌들의 잘못도 적지 않다. 수

경스님의 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격한 표현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은 옳다고 본다. 설사 공감이 가지 않고 반대 의견이 있다면 글로 반론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진정 수좌답게 태연부동하든지 해야 했다. 그런데 결계중에 산문을 떠나 서울로, 실상사로 가서 집단 행동을 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일이다.

<신심명>에는 “잠깐이라도 시비심이 일어나면 분명히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심적으로 ‘정말 잘못했구나, 수좌는 정말 수좌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참회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불교신도나 불교를 아끼는 국민들이 선방수좌들에게 거는 기대를 생각해 보라. 수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답은 명확해질 것이다. 이번 해인사 선방수좌들의 과격한 행동은 불자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다

결계중 산문이탈 수좌들 집단행동 합리화 될 수 없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도 수좌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참회한다. 모두들 다음과 같은 고인의 계승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을 또한 번 경각해 보길 바란다.

나는 누더기를 입고 싱거운 밥으로 배가 부르네. 해진 옷 기워 추위를 막고 만사를 인연에 따라 산다네. 누가 나를 욕한다 해도 나는 스스로 즐거워 하고

누가 나를 때린다 해도 나는 스스로 쓰러져 잔다네. 누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마르네. 나는 힘을 소모하지 않고 그 사람도 번뇌가 선다네.

이러한 바라밀이아말로 바로 오묘한 보배라네. 만약 이 소식을 안다면 도 이루지 못할까 무얼 걱정하리.

*이 난의 내용은 현대불교의 편집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청동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탁자

청동불상 제작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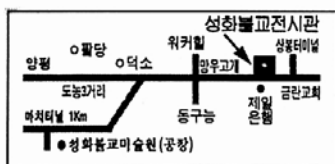
제원 높이 190cm 가로 180cm

중·야 상담합니다

천수천안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대표 이상식 합장 성학불교전시관·성학불교미술원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태창빌딩 1층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 장 : (031)591-1022, 휴(011-302-1022



법인·시설·단체 실무행정

ZIC 복지법인경영총람

법인의 분류

사회복지법인의 행정

1.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법규
2.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내용
3.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후 업무

1. 허가 후 주요업무
 - 1) 설립등기 사항보고
 - 2) 재산 이전 보고

시설운영에 관한 사례

1. 회계처리사항
2. 법인·시설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과 결산
3. 과목별 예산 부족시 일시 처립
4. 기부금 관리
5. 공시,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사항
6. 물품관리
7. 기본재산처분
8. 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

9. 직업보도사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
10. 법인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및 정부
11. 사회복지시설 운영상 소홀히 하기 쉬운 사항
12. 법인의 각종 사례
 - 1) 법인 설립허가 사례 4종류
 - 2) 임원 취임연경 사례 4종류
 - 3) 재산 처분(농지)사례 2종류
 - 4) 재우로 인한 기본재산 가압류 사례 2종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사회복지법인의 분리

장기차입 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사회복지관련 법률·시행령·규칙

1. 사회복지사업법
2. 노인복지법
3. 아동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영유아보육법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ZIC 복지법인경영총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한 도서입니다.



정가 : ₩28,000(5×7판495page)

구입문의 : 080-003-0888

발행처 복지인합심문서